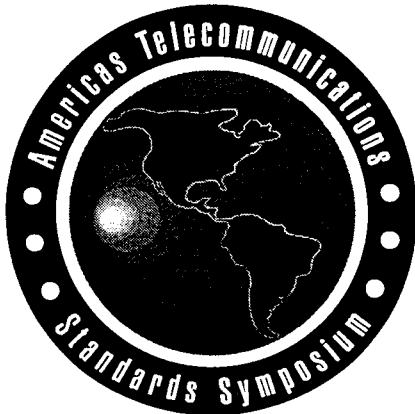




ATSS참가 및 T1위원회 방문을 마치고

이민범/표준화국장



PROGRESS THROUGH STANDARDS

ATSS(Americas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Symposium) 참석

미주 지역의 전기통신 표준에 대한 심포지움 이 미국의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하이아트 호텔에서 4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3일에 걸쳐 펼쳐졌다.

이번 심포지움은 미주지역의 전기통신망 상호연동성 향상, 미주 지역 국가들간의 무역증대 그리고

범 세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목표로 표준화 기관간의 협력방안과 미주 지역내의 표준 제정 절차의 단일화 등의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활동계획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차기회의는 '93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기로 결정한 것을 끝으로 그 막을 내렸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축이 되는 북미, 중미, 남미를 포함 기타 지역에서 모두 105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참석자는 표준연구 3실 김용환 실장과 필자 두 사람이었다.

심포지움의 진행

미주지역의 표준화 기관 및 표준화 관련 기관간의 표준의 이용 및 품질향상, 표준화 제정 과정에서의 상호 관심사항 확인과 협력방안 모색 및 관리 효율 향상, 그리고 지역 및 세계적인 표준화 추진에의 협력을 이번 심포지움의 의의 또는 목적으로 하여 3일에 걸친 심포지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T1위원회(Standards Committee T1-Telecommunications)를 비롯한 주요 참여기관들의 표준화 활동소개를 처음으로 심포지움에 제출된 22건의 각 기관의 기고문 소개 등이 뒤를 이어 진행됐다.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CITEL(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nference), X3(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 X3-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Communications Society), TIA(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OS(Corporation for Open Systems),

IAB(Internet Activities Board),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ssociation), TSACC(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NIUF(North American ISDN Users Forum), NMF(Network Management Forum) 등이 있다.

또한 분야별로 5개 분과위(표준의 품질 및 효율, 지역 표준화 활동, 정보교환(사무자동화)기술, 표준화 기관간의 협력, 표준의 구현 및 관리)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제출된 기고서를 배분·검토 후 분야별로 토의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토의를 종합 정리하여 그 결과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심포지움에서 진행했던 기타 행사로 「전기통신의 연동성에 대한 장애물과 권장사항」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은 미국대사 Bradley P. Homes의 사회로 Bell Core의 부사장 Irwin Dorros, Nothern Telecom 부사장 Robert Kenedi, TSACC의장 Paul Racine, AT&T Architecture 부사장 Joseph Timko의 주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한편 Vice President인 Mr. Kushnier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심포지움의 결과

이렇듯 다양하고 활발한 가운데 진행되어 온 이번 심포지움의 결과 다음과 같이 활동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함과 동시에 활동계획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 활동목표

- 미주지역에서의 전기통신망의 상호 연동성 향상
- 미주지역 국가들간의 무역증대
- 사용자들의 요구에 기초한 범세계적인 표준화 추진

2. 활동계획

- 표준 및 표준관련 기관간에 표준제정에 필요한 상세한 표준 및 표준화 과제 리스트 교환
- 정보통신과 전기통신표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사무자동화 및 통신장비 활용 증진
- 93년도 CCITT 총회에 대비한 입장 제시
- 표준화 기관간의 신속한 자료교환을 추진키 위해 표준화 추진 상태의 표시
- 표준화 활동 참가범위 확대 추진제도 도입
 - 자료공개 열람제도, 전략 계획 수립, 공동과제 관리, 사용자의 제안 촉진
- 미주 지역내의 표준제정 절차의 단일화
- 미주 지역내 표준화 기관의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에 관한 정책 검토
- 표준에 적합성 시험기준 포함

3. 활동계획 추진을 위한 결의안

1) 전략계획 그룹 구성

○구성

CITEL(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nference), 특히 산하 PTC-1은 즉시 회원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의 포럼과 전문가들로 전략계획 그룹을 구성한다.

○임무

-국제적인 전기통신 표준제정과 관련하여 미주지역에 취해야 할 방향 설정



- 미주지역내의 표준화 기관들의 공동관심이 되는 정책문제를 검토하여 이들이 취해야 할 중요사항 제시

2) 공동관리팀 구성

○구성

ATSS에 참가한 표준화 및 표준관련 기관의 대표로 3개월내에 공동관리팀(Joint Management Team)구성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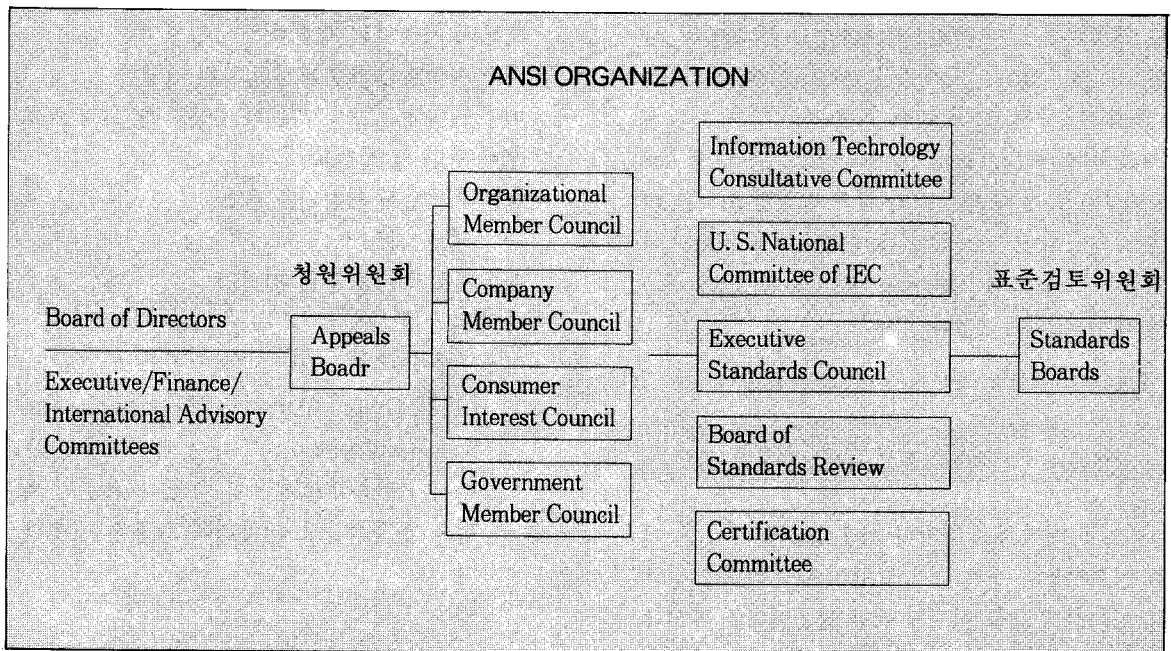
- T1, X3, COS, NIUF 등의 모델에 기준하여 Life cycle process 작성
-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 설정
- 표준화 및 표준화 관련 기관간의 전략계획 작성방법, 협력방법 및 공동사업 관리 방법의 수립

기타 활동 사항

한편 차기 회의는 브라질의 초청으로 1993년 11월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심포지움 행사 중 ANSI의 Vice President인 Gary. W. Kushnier와의 면담과 TIA의 Vice President, Peter H. Bennett와의 면담을 통해서 각 기구의 활동분야 및 조직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들을 송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ANSI의 조직 및 활동사항은 다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ANSI는 non-government, non-profit 단체로서 표준화 기관들의 연합체이지만 정부에서도 25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250



ANSI의 조직도

개 표준 관련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ANSI 표준은 Voluntary(권고)표준이나, 정부(지방정부)가 이를 필요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는 mandatory(강제)표준이 되기도 한다.
- ANSI는 표준작성은 하지 않고, 표준관련 단체들이 제출한 표준안을 승인하는 일을 하며, 이는 ANSI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안이 작성되었는지와 의견수렴 결과를 기준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 표준안 심의는 표준 검토위원회(Board of Standards Review)에서 실시하며,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준 검토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원위원회(Appeals Board)에 제소할 수 있다.
- 91년도 심의 건수는 1,700건으로 이 중 2건이 청원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 ANSI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의 미국의 대표로 활동하며, ISO와 IEC의 Joint Committee(공동위원회)인 JTC1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ISO와 IEC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유럽 표준화 기구인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과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에 제출되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ATSS 참가 소감

미주 지역의 표준화 및 표준화 관련 기관들간의 협력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주 지역간의 무

역을 증대하고, 표준화 부문에 있어서 미주 지역의 입장을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던 이번 ATSS는 그 취지를 이후 충분히 발휘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캐나다의 TSACC는 미주 표준화 기구를 창설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표준화도 불럭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금번 ATSS에는 많은 관련기관들이 열성적으로 참가하였고, 일반 업체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참여도와 관심을 보였던 것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으며 표준이 생활화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더불어 우리도 전기통신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 마인드의 확산, 즉 표준이 생활화 될 정도로 표준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T1위원회(워싱턴 D.C.) 방문

ATSS에 참가한 뒤 4월15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T1위원회를 방문하여 X3위원회 사무국의 Director인 Jean-Paul Eamrd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T1위원회의 사무국장인 O. J. Gusella와 Alvin Lai가 배석하였으며 X3위원회의 활동사항과 T1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하여 얻은 정보이므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빈약한 점이 많지만 X3위원회와 T1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조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X3 위원회≡

- X3는 ANSI로부터 인가된 표준화 기관으로



서 활동분야는,

- ① 컴퓨터 및 정보처리, 주변장치 및 관련 미디어(플로피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광디스크 등)에 관한 표준.
- ② 사무기기(Wordprocessor, Typewriter 등)의 기능 특성에 관한 표준
- ③ 기기들의 부속장치(마우스, 라이트펜 등)에 관한 표준 등이다.
- X3는 T1이 ECSA에 의해 운영되듯이 CBEMA(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의해 운영된다.
- X3 사무국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JTC1 TAG도 겸하고 있다.
- 조직은 소비자, 관심자, 생산자 등 3개 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X3위원회 밑에 TC(Technical Committee)가 있으며, 그 밑에 약 90개의 TG(Task Group)로 구성되어 있다.
- TC에는 약 3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비는 \$300/년이며, X3위원회는 3개 분야에 40개 단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회비는 제조업체/행정부 \$7,500, user class A는 \$5,500, user class B는 \$1,500, organization은 \$4,500, 옵서버(observer)는 \$2,500이다.
- X3위원회의 투표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단일 투표권이다.
- TC, TG는 최소 4개 이상 단체에서 참가하여야만 구성한다.
- TG는 Engineer로 구성되고, X3위원회는 Manager급 이상으로 구성된다.
- TG 회의는 1년에 6회 개최한다.
- 표준화 단계는 0~19 단계가 있으며 약 2년

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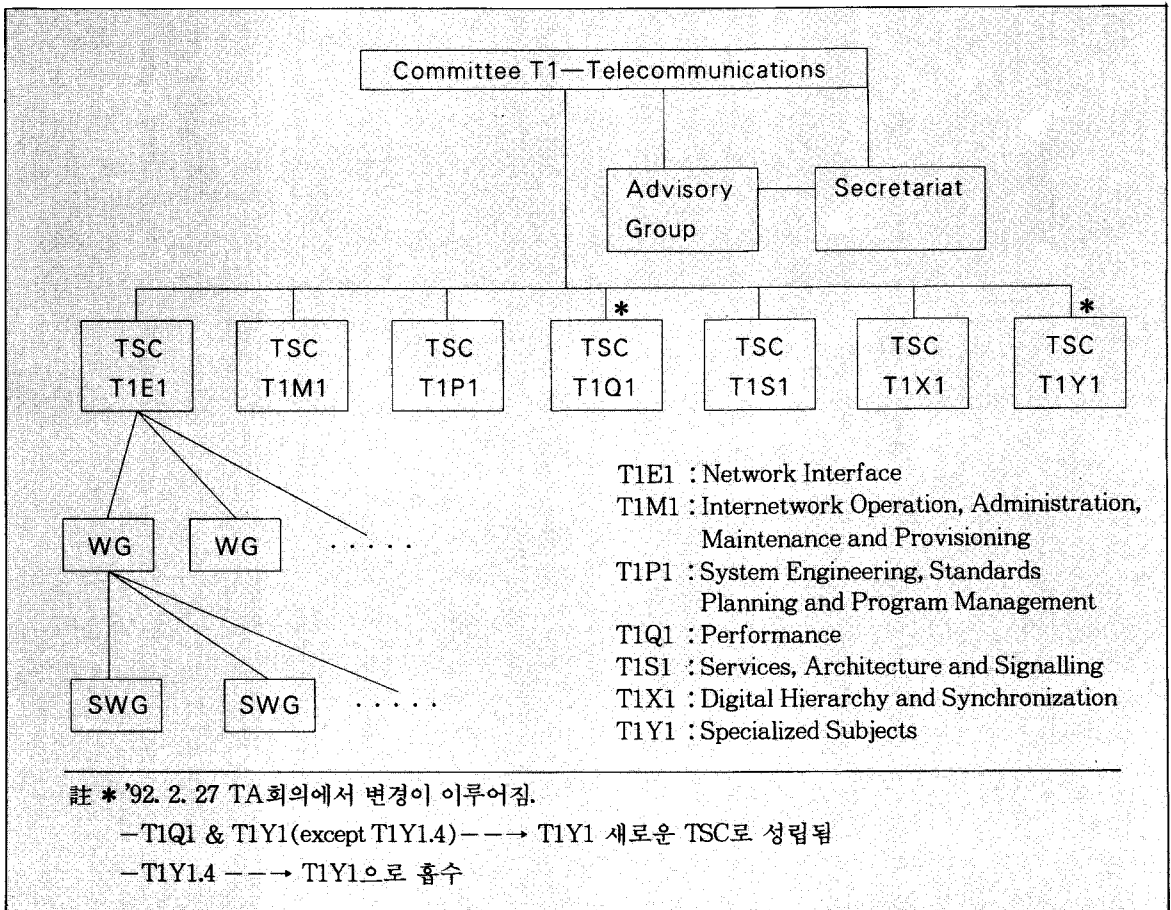
- 2차례의 Public Review를 실시한다.
 - 1차 : X3위원회에 X3표준안 채택키 위한 Public Review.
 - 2차 : ANSI에 국가표준 요청키 위한 Public Review.
- Public Review시의 표준안은 X3위원회 위원(4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입해야 한다.(인쇄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음) 그리고 2차 Public Review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Public Review시 표준안을 구입한 사람에게 모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용어 통일 및 표준 담당 TC가 있으며, 각 TC에 대표가 있다.

≡ T1 위원회 ≡

- T1은 ECSA에 의해 운영된다. ECSA에는 미국의 130여개 전화회사(대: 8개, 중: 8개, 소: 나머지)의 95%가 참여하고 있다.
- 조직은 아래 <그림 II>와 같다. T1의 참가자는 제조업자, 사용자/관심자, 장거리 및 국제전화회사, 시내전화회사 등의 4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T1AG에는 4개 그룹별로 최소1명의 대표가 참석해야만 회의가 성원된다.
- T1의 회의는 연간 약 40회 개최된다.
 - TA : 3회/년
 - T1AG : 6회/년
 - TSC : 4회/년 × 6개 TSC = 24회/년
- ※ TSC 회의는 1주일간 (5 WORKING DAYS) 계속되며, 1일, 5일은 plenary, 2일~4일은 산하 각 Working Group회의 그리고 4일째 저녁에는 leadership meeting이 있다.

- ※ 사무국에는 leadership meeting과 5일제인 plenary에만 참가한다.
- TSC 산하 WG은 약 45명 정도로 구성되며 WG과 SWG에서는 투표가 없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않는다.
- 회의 개최시 사전통보는 45일 전에 해야되며, 회의 안전 및 회의장 안내문(호텔, 교통 등)은 30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 회의는 회원단체에서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

- 로 하나, 유치단체가 없는 경우, T1 사무국에서 유치한다.
- T1은 T1 자체의 표준채택을 위한 의견수렴과 국가 표준 승인을 위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동시에 실시한다.(X3위원회와의 차이점)
- T1사무국의 인원은 8명으로 5명은 T1 전임이며, 3명은 일부 T1을 지원하며 ECSA 업무도 지원한다.



(그림 II) T1 위원회 조직도